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14	11. 21	11. 28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김영희 권사	통성기도
성 경 봉 독	김복자 권사	김영희 권사	김민혜 자매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감사 - 설교해주신 맹기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상호 목사님은 건강 상 한국에 좀 더 머무를 예정입니다.
3. 예배 전 찬양 -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4. 11월에도 읊기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영육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5.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58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9 : 22 - 27(신p107)..... 황희순 집사
 설 교 Predigt 자기를 부인하고 맹기현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61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정용현 안수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축 도 Segnungsgebet 맹기현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부름이나 굶주림, 문명이나 처참한 폐허, 괴로운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모두가 견뎌야 할 고통,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 부족한 양식과 의복, 기타 모든 소소한 고생은 다 일차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란 바로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현실을 두려워하기 보다 과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온갖 문제로 우리의 절망을 부추기지만 성령은 바로 그런 문제를 재료 삼아 우리의 믿음을 빛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과감히 묻습니다. 믿음의 기적, 아버지 집의 안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경험할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보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굶주림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절망을 믿음으로, 먼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 자녀의 복된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 / Helmut Thielicke 교수
 (Hamburg 대학교 신학자)

*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는 일이다. - Anthony DeStefano(Priests of Life 총무) -